



다시 뛰는 대한민국

여행 소비 확대를 기대하며

SK증권 미래산업/미드스몰캡나승두
02-3773-8891 / nsdoo@sks.co.k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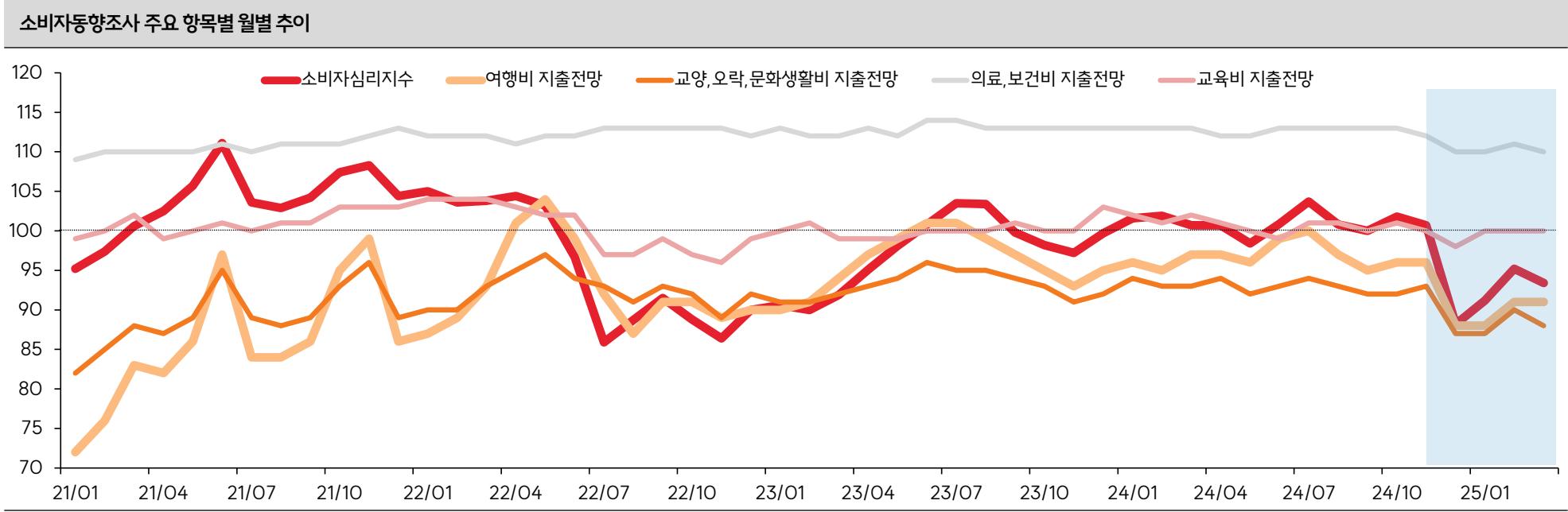
Summary

- 지난해 12월부터 하락했던 소비자심리지수, 올해도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등의 여파로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
- 미국 관세 부과, 경기 침체 우려 등의 여파 있겠지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국면 진입했다는 점에서 반등 기대
세부 항목 중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준 여행비 지출 전망은 긍정적
- 대한국민 출국자 수 올해 3,000만명 넘어설 것으로 예상, 5월에도 10월에도 있는 연휴 효과 기대
- 올해 2월 중국 향하는 우리나라 출국자 59.5% 상승, 일본 3.4%, 베트남 3.1% 대비 압도적
- 1분기 인천국제공항 여객기 운항편수 YoY 6.0% 상승, 올해 입출국자 최고 기록 달성 전망
- 1분기 제주도 외국인 입도객도 4.7% 상승, 중국 및 대만 관광객 각각 2.3%, 19.5% 상승하며 중화권 입도객 증가 눈에 띌
- 올해 제주국제공항 기점 국제선 항공편은 4개국 22개 노선, 주 196회 운항 예정
-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도 중국인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중, YoY 1월 105.4%, 2월 48.8% 상승
- 중국 자국 경기 부양의 미 확대 및 소비 여력 회복의 결과, 동아시아 권역 내 중국 관광객 영향력 확대에 지속적으로 관심

4월 먹.자.늘. Top pick – 하나투어, 롯데관광개발, JTC

소비자심리지수 반등 기대

- 2024년 11월 101을 기록했던 소비자심리지수, 12월 비상계엄 및 무안공항사고 등 여파로 88까지 하락했지만 올해 2월 95까지 빠르게 반등
- 지난달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등의 여파로 93까지 소폭 하락했지만, 불확실성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시금 반등 가능할 것으로 전망
- 미국 상호관세 부과,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현재 경기판단, 향후 경기 전망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, 세부 항목별 편차 전망
- 3월 소비자심리지수 약세에도 횡보했던 여행비 지출 전망에 주목,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및 5월 연휴 효과 등 단기간 반영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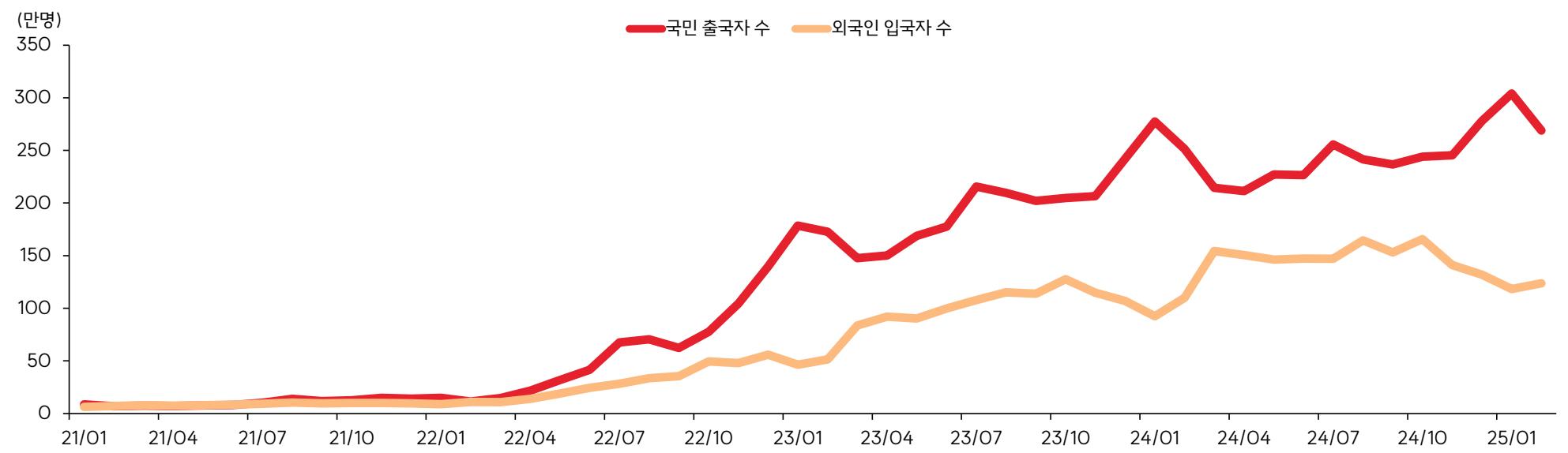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, 통계청, SK증권

해외 여행을 떠나는 우리나라 국민도,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 중

- 지난해 연간 2,910만명 돌파했던 대한국민 출국자수, 올해 3,000만명 돌파할 것으로 예상
- 올해 2월까지 누적 출국자수 573만명 기록,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8% 상승, 같은 흐름 이어간다면 올해 연간 약 3,150만명 이상 출국 예상
- 1월 설 명절 연휴, 5월 어린이날 및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연휴, 10월 추석 명절 연휴 등 긴 연휴 활용해 떠나는 해외 여행 증가 예상
-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입국자수도 증가 추세, 올해 2월까지 누적 242만명 기록,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0% 상승한 수치
- 올해 연간 2,000만명 이상 외국인이 우리나라 찾을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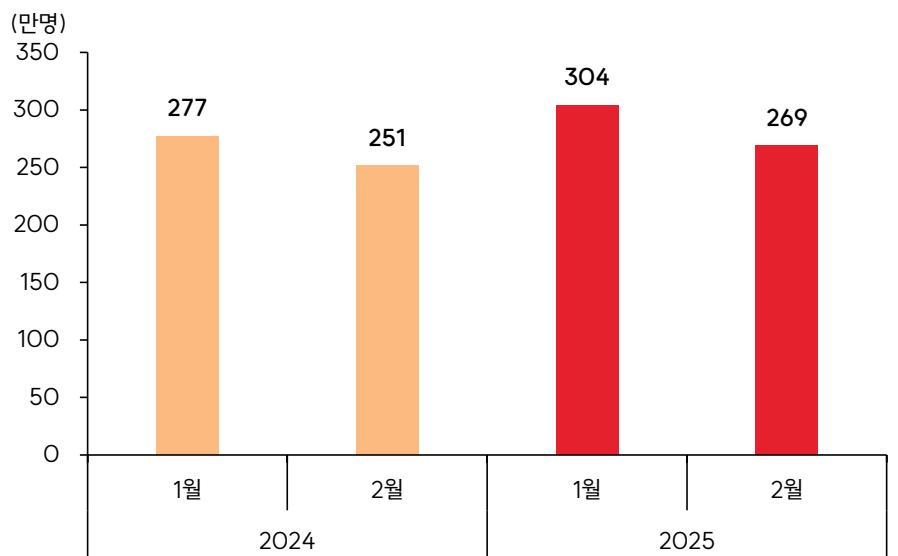
우리나라 국민 출국자 수 및 외국인 입국자 수 월별 추이



자료: 법무부, SK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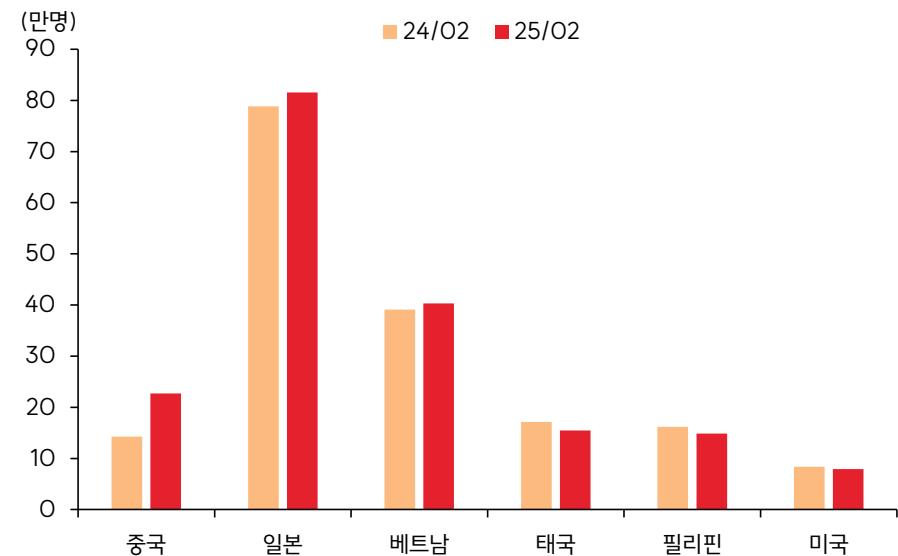
- 올해 1월과 2월 우리나라 국민 출국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9.6%, 6.9% 상승, 누적 573만명 기록, 연간 3,000만명 상회 가능한 수치
- 1월 설 명절 연휴 기간 해외 여행 떠나는 관광객 크게 증가, 2월 연휴는 없었지만 비슷한 흐름은 지속
- 2월 한 달간 태국/필리핀/미국 등 향하는 출국자 수 감소했지만, 중국/일본/베트남 등 향하는 출국자 수는 증가
- 중국 향하는 출국자 2월 한 달간 23만명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59.5% 상승, 일본은 82만명으로 3.4%, 베트남은 40만명으로 3.1% 상승
- 중국, 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정책 시행 및 항공 취항 노선 확대 등 영향 있었던 것으로 풀이

우리나라 국민 출국자 수 YoY 증감



자료: 법무부, SK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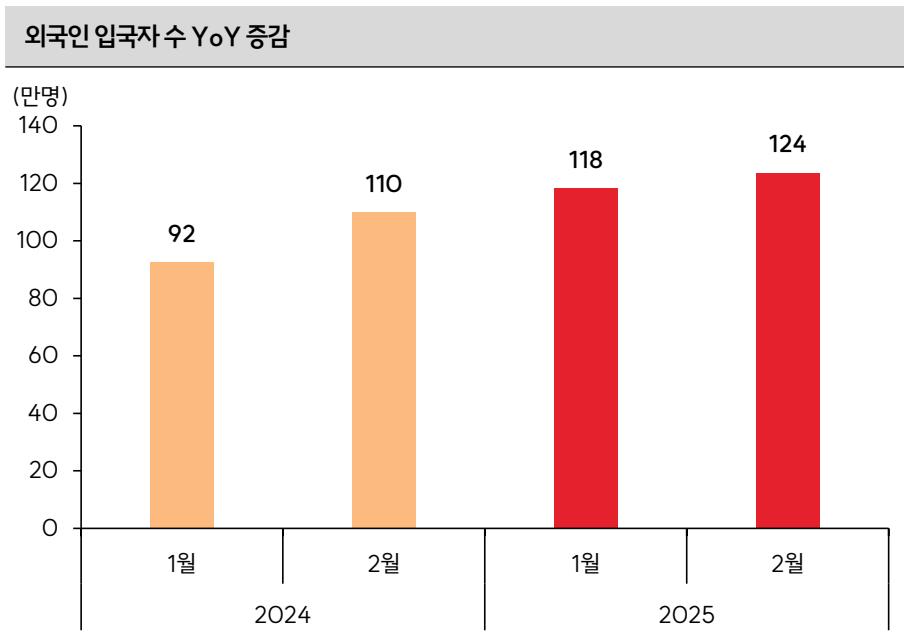
도착지별 내국인 출국자 수 YoY 증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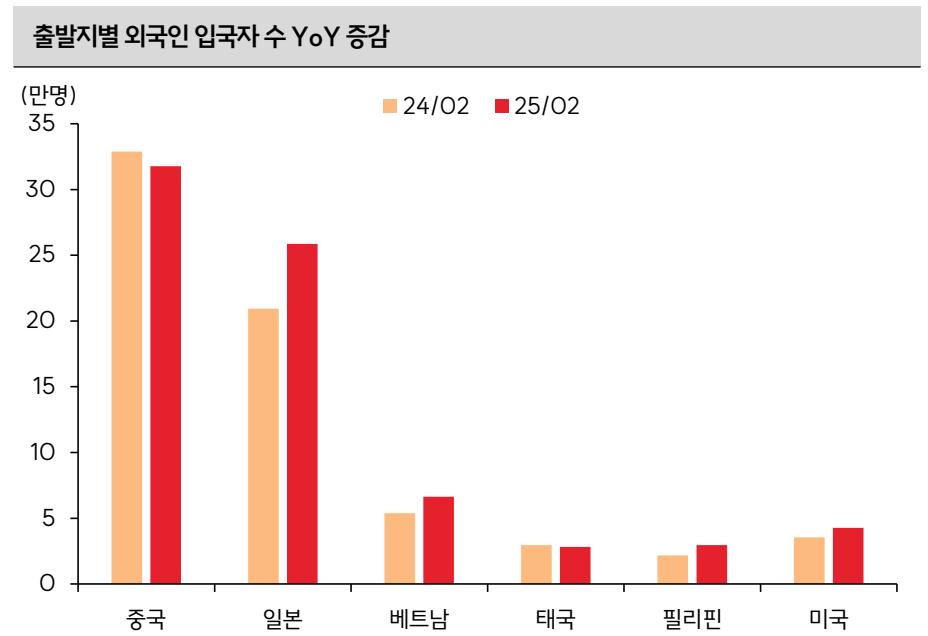
자료: 법무부, SK증권

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

-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, 올해 1월과 2월 전년동기대비 각각 27.9%, 12.5% 상승, 누적 242만명 기록, 연간 2,000만명 상회 가능할 수치
- 2월 한 달간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찾은 입국자 26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3.5% 상승, 베트남 입국자는 7만명으로 23.4% 상승
- 반면 중국은 1월 입국자수 전년동기 대비 31.3% 상승했으나, 2월 입국자수는 -3.4% 하락
- 우리나라도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시행 발표했으나, 올해 3분기부터 본격 시행 예정
-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위 격화 등의 영향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, 외국인 관광객 연간 추세적 증가에는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



자료: 법무부, SK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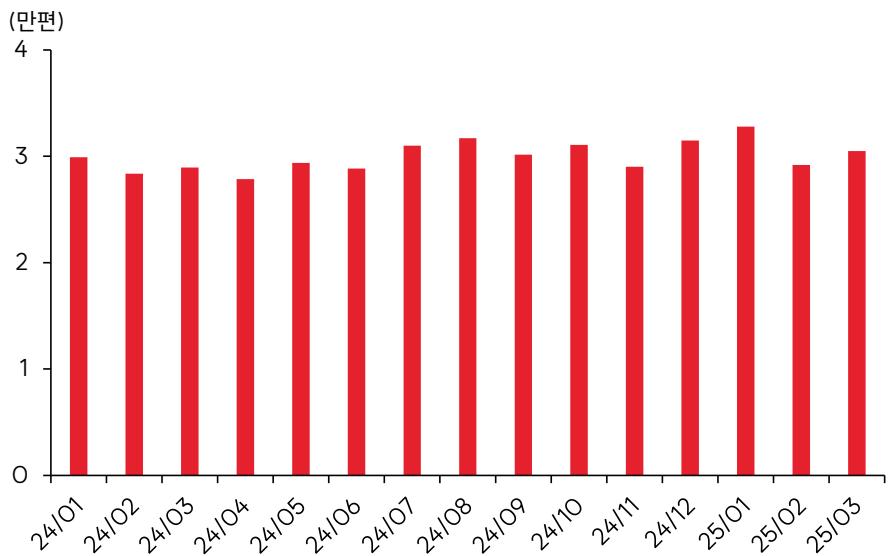


자료: 법무부, SK증권

비빠지는 인천국제공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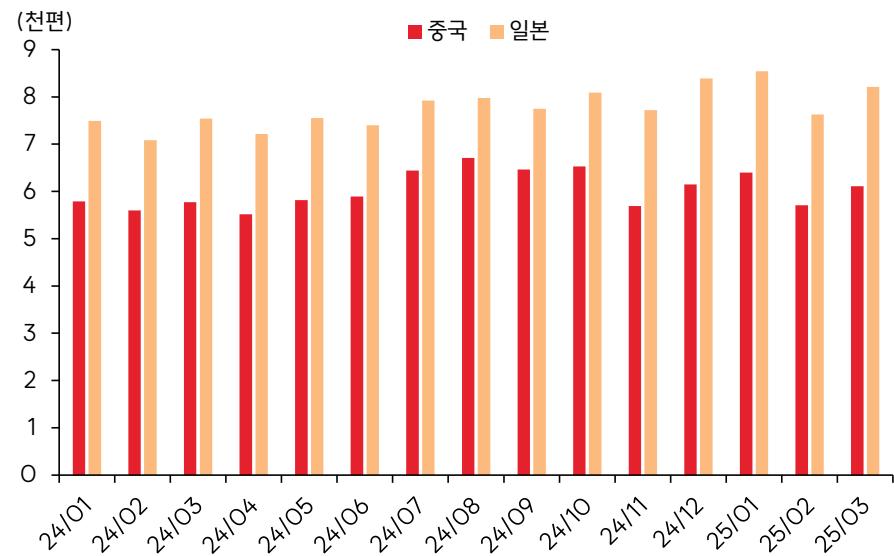
- 2024년 12월 4단계 확장 공사 마무리한 인천국제공항,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간 정식 운영 시작됨
- 기존 인천국제공항 여객 처리 능력 7,700만명에서 4단계 확장 마무리 이후 1억 600만명으로 37.7% CAPA 상승, 세계 3위 규모
- 올해 3월까지 여객기 기준 월 평균 운항 편수 3만편 돌파, 지난해 1분기 대비 평균 6.0% 상승
- 1분기 누적 중국 운항 편수 전년동기 대비 6.1% 상승, 일본 운항 편수 전년동기 대비 10.2% 상승
- 올해 신규 여객기 인도 증가, 신규 취항 노선 등의 확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이용하는 입/출국자 최고 기록 달성 예상

인천국제공항 여객기 운항 편수 월별 추이



자료: 인천국제공항, SK증권

인천국제공항 중국 및 일본 여객기 운항 건수 월별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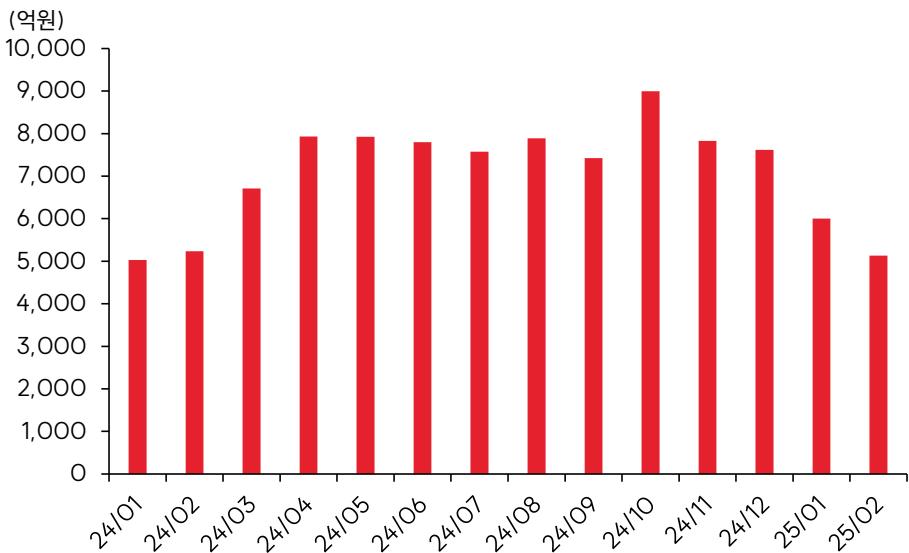


자료: 인천국제공항, SK증권

국내 관광 소비금액은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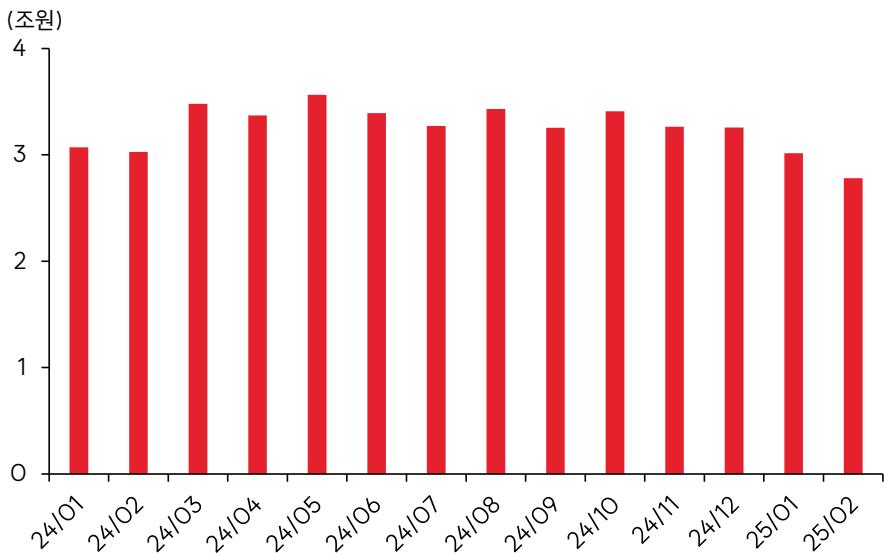
-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살펴 본 국내관광 소비금액은 감소하는 추세
- 외국인의 국내관광총소비금액은 올해 1월 전년동기 대비 19.4% 상승했지만, 2월에는 -1.9% 하락
- 내국인의 국내관광총소비금액은 1월과 2월 모두 -1.8%, -8.2% 하락
- 외국인관광객 소비의 경우 1월 연초 효과 등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풀이, 내국인의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 및 관광지 물가 등의 영향 미친 것으로 풀이
- 일부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지만, 내/외국인의 국내관광 소비둔화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

외국인 국내관광총소비금액 추이



자료: 한국관광공사, SK증권 / 주: BC+신한 신용카드 소비데이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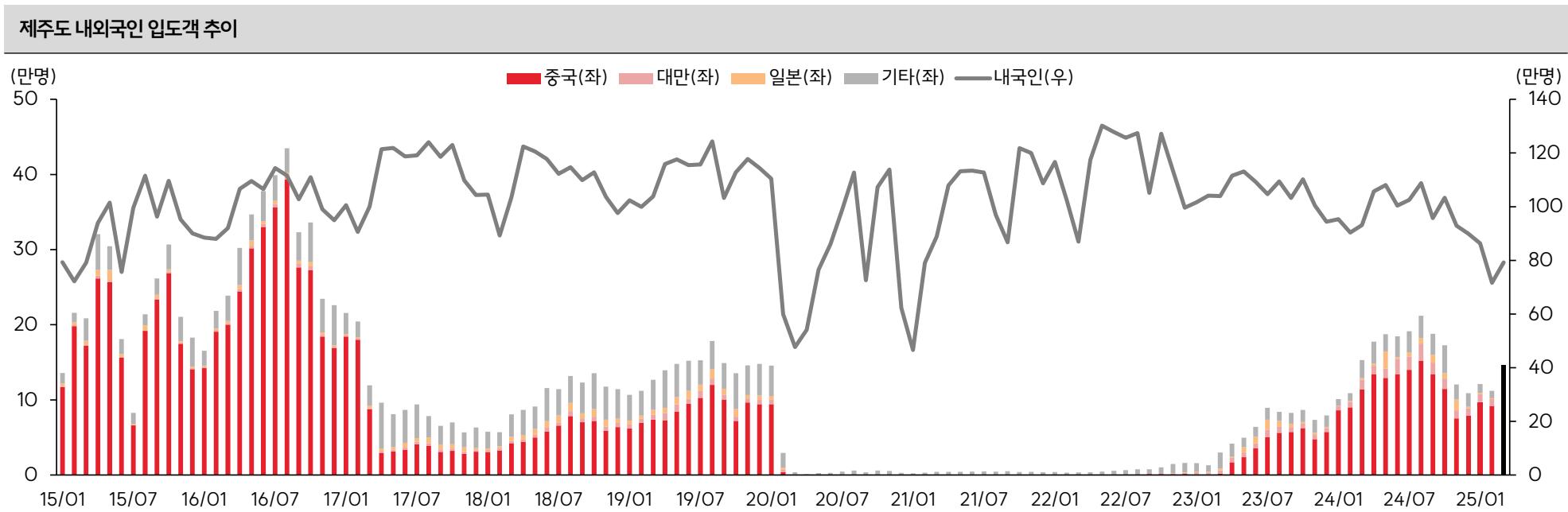
내국인 국내관광총소비금액 추이



자료: 한국관광공사, SK증권 / 주: BC+신한 신용카드 소비데이터

외국인 관광객 증가하는 제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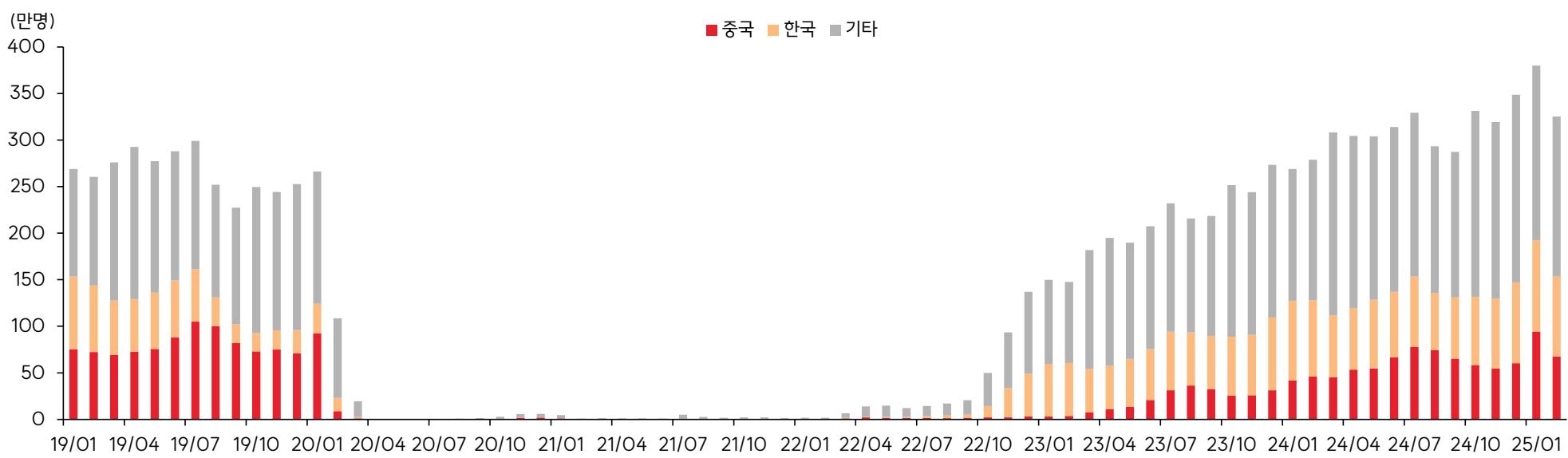
- 외국인관광객 대상 무사증 제도 시행 중인 제주도, 3월 외국인 입도객은 전년동기대비 -4.1% 하락했지만 1분기 누적 입도객은 4.7% 상승
- 중국 및 대만 관광객 2월 기준 각각 2.3%, 19.5% 상승, 반면 일본 관광객은 -10.8% 하락
- 하계여행 시즌 맞아 제주국제공항 기점 국제선 항공 4개국 22개 노선, 주 196회 운항 예정
- 반면 제주 국내선의 경우 항공사별 여타 국제선 확충 기조에 따라 상대적으로 확장 속도 더딘 상황
- 3월 내국인 입도객은 2020년 5월 수준까지 감소, 내국인 및 외국인 입도객의 균형 있는 회복 고민 필요한 시점



자료: 제주도관광협회, SK증권

- 올해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 속도 뜻지 않게 빠르게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국가는 일본
- 1월 일본 전체 외국인 입국자 전년동기 대비 36.3% 상승한 반면, 중국인 입국자는 105.4% 상승
- 2월에도 전체 외국인 입국자는 5.6% 상승했지만 중국인 입국자는 48.8% 상승, 일본 입국 한국인도 1월과 2월 각각 19.6%, 29.7% 상승
- 2025년 접어들며 우리나라 및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 속도 가파르게 나타나는 중
- 중국의 자국 경기 부양 의지 확대 및 소비 여력 회복의 결과, 탈세계화 기조 속 동아시아 권역 내에서의 중국 관광객 영향력 지속 확대에 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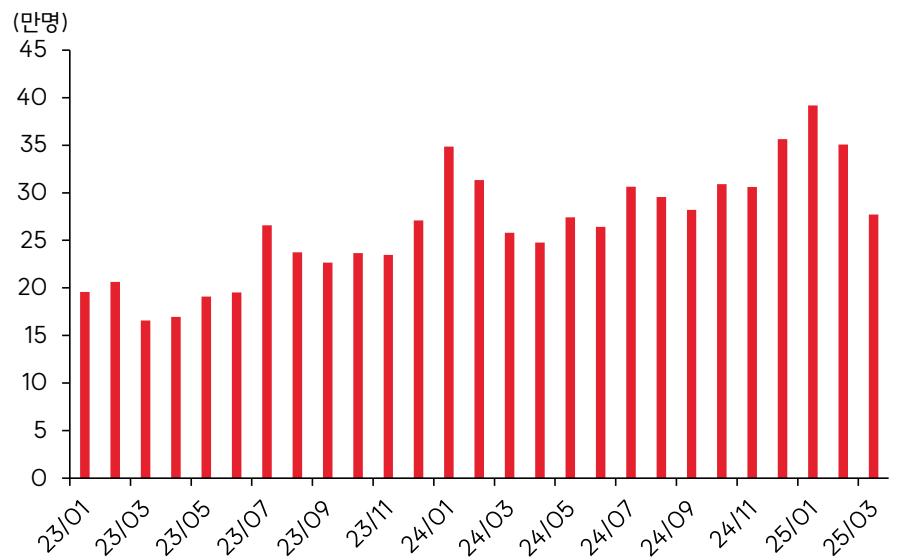
일본 외국인 입국자 수 추이



자료: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, SK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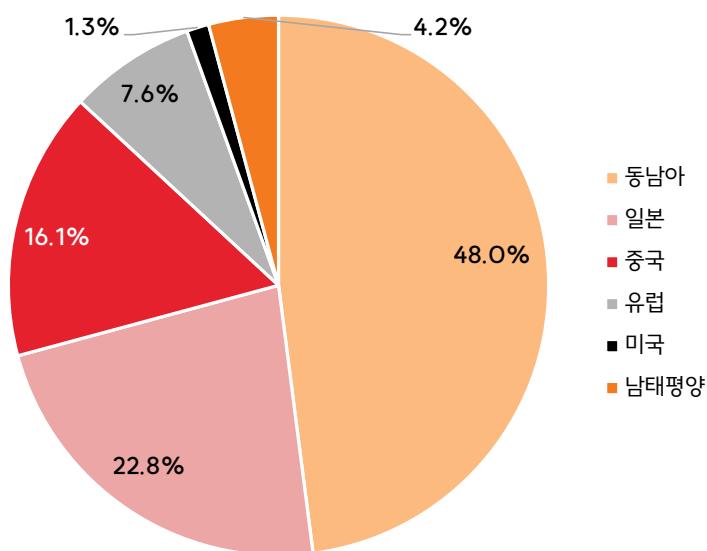
- 1분기 누적 해외 총 송출객 102만명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10.9% 상승
- 1분기 누적 패키지 송출객은 -4.4% 하락,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등의 영향 미쳤을 것으로 풀이, 설명절 연휴 있었던 1월에는 7.0% 상승한 바 있음
- 중국 패키지 여행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, 송출인원 기준 1월 비중 7.9%에서 3월 16.1%까지 빠른 증가 추세
-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제도 시행 및 신규 항공 노선 취항 등 영향으로 패키지 여행 수요 증가
- 우리나라 전체 출국자 중 하나투어 송출객 차지 비중 지난해 대비 약 1%pt 내외 증가 추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고무적

하나투어 월별 송출객 추이



자료: 하나투어, SK증권

3월 지역별 패키지 송출객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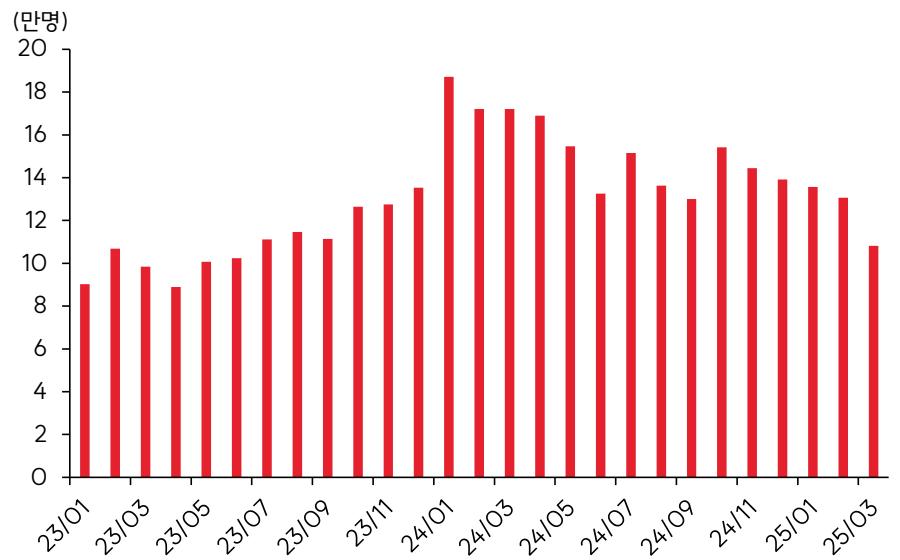


자료: 하나투어, SK증권

모두투어 -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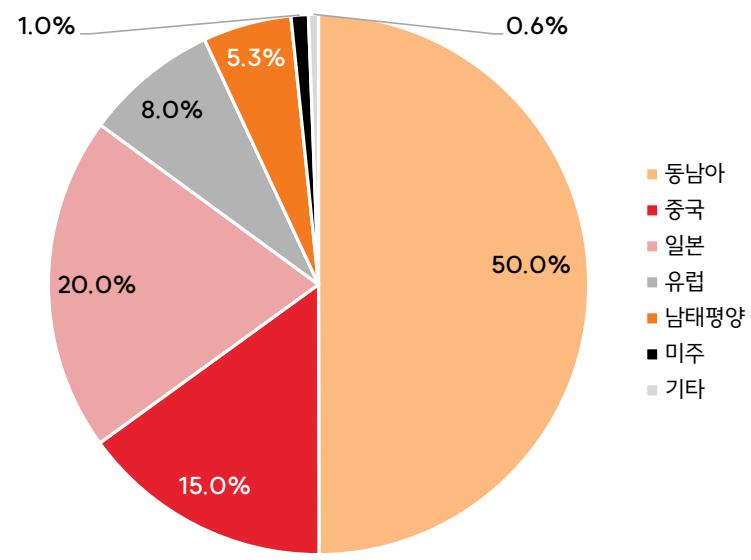
- 1분기 누적 해외 총 송출객 37만명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-29.5% 하락, 업계 내 체급 차이 확인할 수 있었던 1분기
- 1분기 누적 패키지 송출객은 -23.5% 하락, 총 송출객 대비 패키지 송출객 감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점은 고무적
- 중국 패키지 여행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, 송출인원 기준 1월 비중 9.2%에서 3월 15.0%까지 빠른 증가 추세
-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제도 시행과 신규 항공 노선 취항 등은 여행 업계 내 공통적으로 작용할 긍정적 포인트
- 티메프 환불 사태, 비상 계엄 및 무안공항 사고 등 영향 있었던 2024년, 올해 기저효과로 작용할 가능성 높음

모두투어 월별 송출객 추이



자료: 모두투어, SK증권

3월 지역별 패키지 송출객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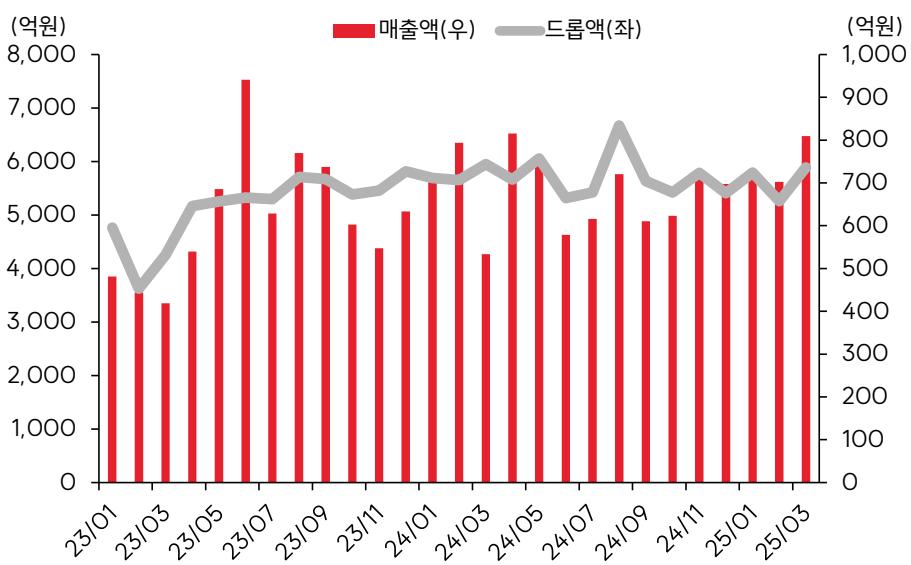


자료: 모두투어, SK증권

파라다이스 - 방한 외국인 늘고, 홀드율도 회복하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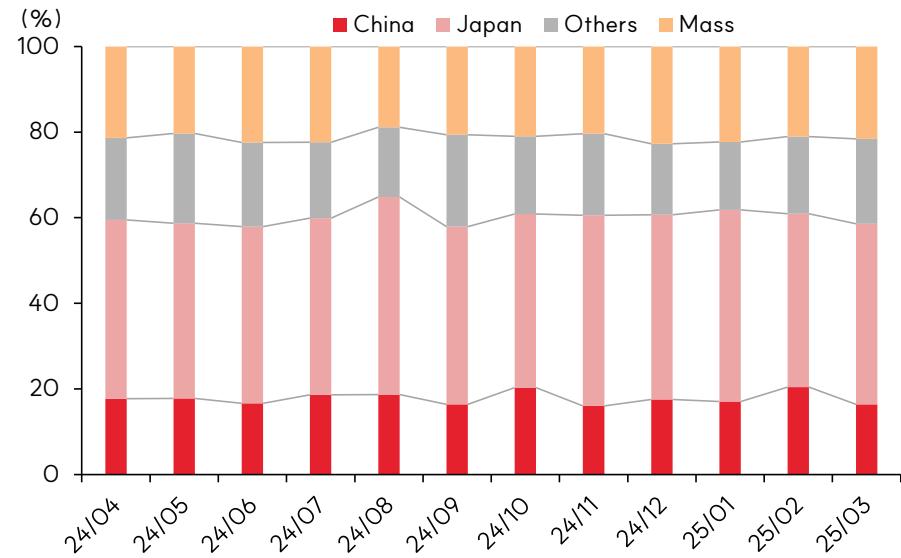
- 1분기 누적 카지노 드롭액은 1조 6,94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-2.0% 하락했지만, 매출액은 2,229억원으로 8.8% 상승
- 드롭액은 소폭 감소했지만, 홀드율 회복하며 매출액 상승
- 드롭액 국적별 비중은 2024년에 이어 현재까지 비슷한 추세 나타나고 있지만, 올해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숫자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
- 중국인 프리미엄 등급 고객 및 동남아 Mass 고객 대상 마케팅 확대 기대
- 일본과 근접한 김해공항 입국자수, 지난해 2월 약 77만명 대비 올해 2월 88만명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

카지노 월별 드롭액 및 매출액 추이



자료: 파라다이스, SK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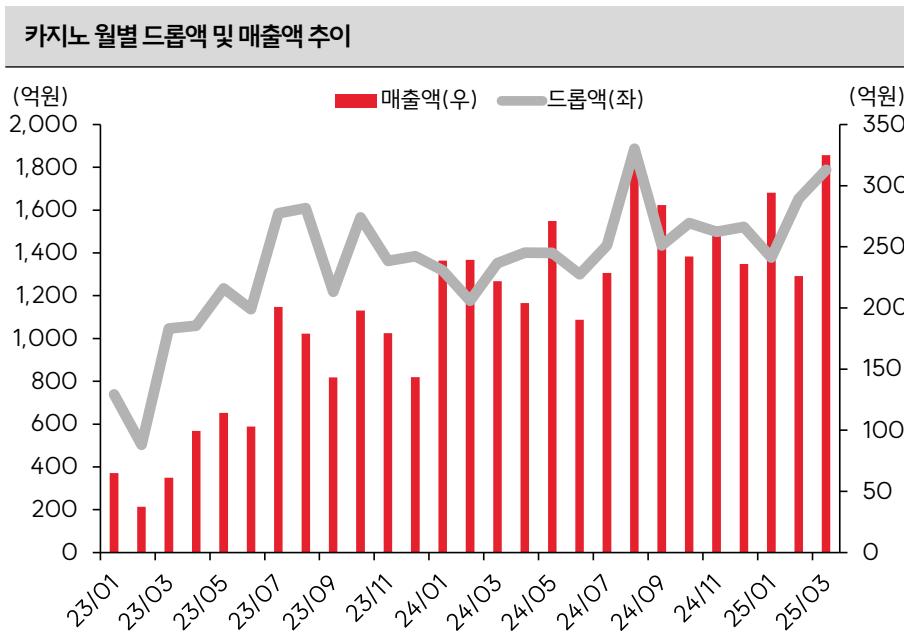
고객별 드롭액 비중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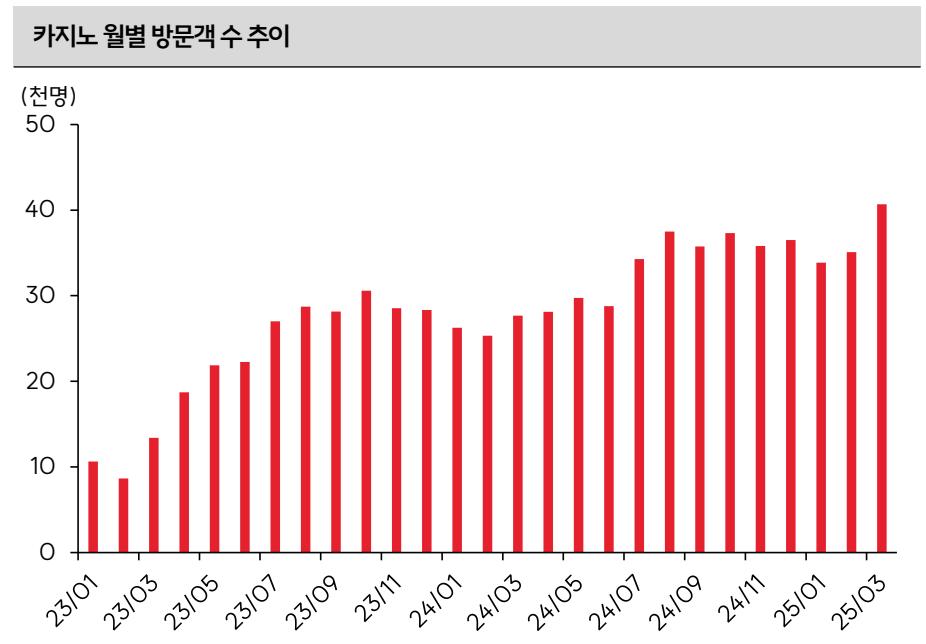
자료: 파라다이스, SK증권

롯데관광개발 -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증가 속도 빠르다

- 올해 들어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를 찾는 방문객 및 드롭액 가파른 성장세 나타나는 중
- 제주도 외국인 입도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카지노 방문객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
- 올해 1분기 카지노 방문객은 11만명 넘어서며 전년동기 대비 38.3% 상승
- 같은 기간 누적 카지노 드롭액은 4,819억원으로 25.3% 상승했으며, 매출액은 845억원으로 20.8% 상승
- 제주 국제공항 기점 국제선 항공 노선 올해 4월부터 주 196회까지 확대 예정, 카지노 개장 이후 최고 실적 간신 이어갈 것으로 전망



자료: 롯데관광개발, SK증권



자료: 롯데관광개발, SK증권

Compliance Notice

작성자(나승두)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개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보고서는 기관 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
당사는 자료 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
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투자판단 3단계(6개월기준) 15%이상 > 매수/ -15%~15% > 중립/ -15%미만 > 매도

SK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(2025년 4월 9일 기준)

매수	97.55%	중립	2.45%	매도	0.00%
----	--------	----	-------	----	-------